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5.23.(월) 10:30, 조중훈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협력을 위한 대북 제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코로나 방역협력과 관련한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동안 북측은 통지문 접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이 북측에 통지문 전달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이 되도록 북측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없음을 고려하여 통일부는 오늘 아침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개시 통화 시 지난주 우리 측이 전달하려고 했던 대북 통지문 관련 북측에 수령 의사를 문의하였으나, 북측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비록 북측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번 한미정상회담 시 양측 정상은 대북 백신지원 등 북한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며, 코로나19에 대한 남북 간 협력의 시급성도 있는 만큼 국제기구 통한 지원 등 여러 우회적 방안을 고려하겠지만, 우선은 북측이 남북 간 협력에 호응해올 것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앞으로 정부는 북측의 코로나 진행상황을 보면서 시간을 두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통일부 주요일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제10회 통일교육주간이 개최됩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념식이 오전 10시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최되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기념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14시에는 '2050 차이를 넘어 통합으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같은 장소인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최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25일 수요일 10시 30분에는 태영호 국회의원과 김민석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북 코로나19 인도지원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북한 코로나 방역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으로, 통일부 장관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아침에 명시적으로 한번 답 물어봤다고, 북측에 통지문 관련 의사를 물어봤다고 했는데 이후에도 또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늘 정부가 북측에 입장을 타진한 이유는 저희가 5월 16일 북한에 제의를 한 지 일주일도 넘도록 북한의 명시적 의사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북측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도 북측이 답변을 하지 않고 통화가 종료됐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북측도 저희의 입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 시점까지 저희가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좀 열린 입장에서 북한의 호응을 계속해서 기다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